

오늘의 계시판

18일
▶제 3회 충장로 축제 개막식 =오후 6시 옛 전남도청 앞 특설 무대.
▶제 1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오후 2시 순천 나안읍성 민속마을. '맛 찾아 떠나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2006인본 떡만들기·공연·남도요리 명장 경연대회 등 행사. 22개 시·군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특산품·음식 판매.
▶제 15회 전남장애인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오전 10시30분 목포시 실내체육관.
▶광주향교 기묘연 =오전 10시 광주향교.
▶순천지역 엠보이스 콜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순천시 저전동 엠보이스 텔레스프트 콜센터.
▶2006 벤처창업강좌 =오전 10시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창업 성공사례 및 분석 등 설명.

제 1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오후 2시 순천나안읍성 민속마을
▶여수소방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오후 2시 여수소방서 3층 회의실.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일반인 등 22개팀 44명이 참여.
▶제 2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시상식 =오후 1시 순천대 우석홀. 환경부 주최로 대통령상 받은 순천을 비롯, 전국 8개 자치단체가 시상.
▶제 127회 강진다산강좌 =오후 3시 강진군 도예연구소. 방철주 동국대 대표가 '강진의 고려청자'에 대해 강연.
▶충장 실버 페스티벌 =오후 4시30분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
▶제 6회 한아름 문화축제 =오후 6시10분 광주 서구청 광장. 노래공연·마당극·장기자랑 등 공연.
▶제 18회 임방옥 국악제 본선 =18일(수) 낮 12시25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송원대 뷰티코디네이션과 졸업 작품 발표회 =18일(수) 오후 5시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동문음악회 =19일

19일
▶대한화학회 제 9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오전 9시30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00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Robert H. Grubbs가 기조강연 및 호암상 수상자 기념강연. 교수·외국인 등 2천500여명 참석 예정.
▶제 20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포럼 =오전 10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이 '기업 CEO의 미래 준비'를 주제로 강연.
▶2008 한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조성사업 기공식 =오전 11시 한평공 한평엑스포공원. 기념 공사를 비롯한 전시영상관·생태관 들어설 계획.
▶제 2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시상식 =오후 1시 순천대 우석홀. 환경부 주최로 대통령상 받은 순천을 비롯, 전국 8개 자치단체가 시상.
▶제 127회 강진다산강좌 =오후 3시 강진군 도예연구소. 방철주 동국대 대표가 '강진의 고려청자'에 대해 강연.
▶충장 실버 페스티벌 =오후 4시30분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
▶제 6회 한아름 문화축제 =오후 6시10분 광주 서구청 광장. 노래공연·마당극·장기자랑 등 공연.
▶제 18회 임방옥 국악제 본선 =18일(수) 낮 12시25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송원대 뷰티코디네이션과 졸업 작품 발표회 =18일(수) 오후 5시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동문음악회 =19일

(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충장로축제 기념 기획초대 '희망 바라보기'회화전 =24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혼자보기 아까운 사진전 =31일까지 일곡갤러리.
▶충장로축제 기념전 =23일까지 무등갤러리 본관.
▶원봉회전 =23일까지 광주서구문화센터 갤러리.
▶프랑스 문화원 패션영상전 =21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신세계 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고보연' =2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 현장프로젝트 '우리의 땅-새만금전' =25일까지 지산갤러리.
▶가톨릭미술가회 '사랑과 영혼전' =18일까지 상계갤러리.
▶화가의 지갑전 =18일까지 메트로갤러리.
▶광주비엔날레 기념 'Paper Propose전'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순아유전' =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뉴스퀴즈

34.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수백만명의 자활을 도운 빈곤퇴직 운동가들을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빈민들이 가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지속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미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무보증 소액 창업대출)'와 같은 획기적인 빈민구제 프로그램을 벌여왔습니다. 제8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도 선정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무하마드 유누스 ②조시 부시
③빌 클린턴 ④토니 블러어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8일(음 8월 27일 庚辰)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Fortune text for each zodiac sign.

숨은그림찾기

< 43 >



▶ 지남주 정답

바늘, 열대어, 담배파이프, 슬리퍼, 서투룩, 종이배, 다리미, 펜촉, 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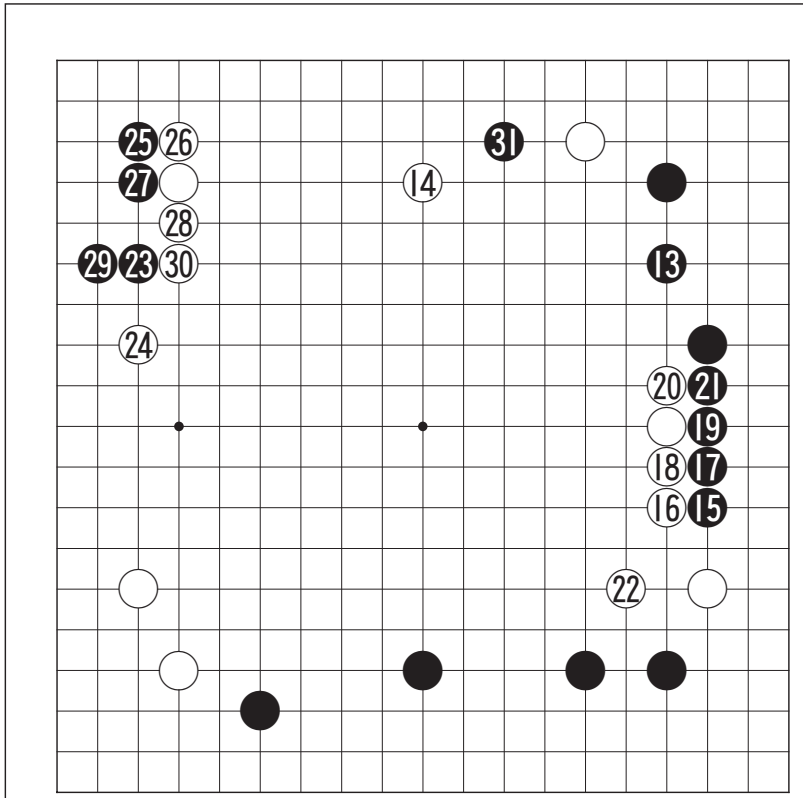


▶ (찾아보세) 담배파이프, 열대어, 펜촉, 서투룩, 갈매기, 은행잎, 물고기, 양주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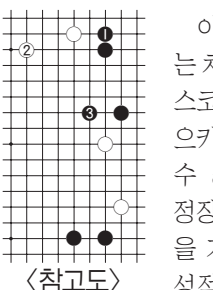
◀ 누나는 경매 중

어느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소경매시장에 갔다. 사람들이 소의 몸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본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왜 소를 만지작거려요?" 아버지가 말했다. "소를 사려면 이곳저곳 잘 만져봐야 한다." 며 칠이 지났다.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뛰어왔다. 아버지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숨어버 가겠다." "아버지! 큰일났어요. 옆집 형이 누나를 사려고 해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당첨자: 박상혁·광주시 동구 학동 김귀성·광주시 남구 백운동



제15회 광주 전남 지방비육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참가한 '포스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병수 5단과 본국의 정장효 5단이 전승을 거둬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컵을 차지해 버렸다. 한동안은 '포스코'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혹 13은 매우 소극적인 응수. 박 5단은 접근전에 감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고 후일을 기

포스코의 돌풍 2보(13~31)

약한 것으로 보이나 이 수로는 '참고도'처럼 흑 1로 철주를 내리고 백 2 때 3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능률적인 응수였다.
혹 15는 박 5단이 노리던 침입이다. 흑이 13으로 단단하게 지킨만큼 백이 16으로 알기쉽게 놀려간 것은 예정된 코스다. 백 22까지 흑은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선수를 잡아 그런대로 타협이 이루어 졌다. 흑 31로 뛰어들어 일찌감치 중반전에 돌입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파크랜드 12경기만에 첫승

부산 파크랜드가 한국바둑리그에서 12경기만에 귀중한 첫승을 올렸다. 파크랜드는 최근 한국바둑리그 12라운드 대전 신성건설과의 경기에서 조훈현과 김주호, 서건우의 승리로 3-1 승리를 거뒀다. 리그 전체 8개 팀 가운데 1승을 건지지 못한 유일한 팀이었던 파크랜드는 8무3패 뒤 감격의 첫승을 신고했다. 이 승리로 승점 3점을 확보한 파크랜드는 꼴찌에서 5위로 도약, 포스트 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4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경기에서는 서울 제일화재와 경기 한게임이 2대2로 비겼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55>
I got a raise
내 월급 올랐더니!
A: I got a raise.
B: Good for you!
A: Thank you.
B: Now you can move to a better apartment.
A: That's exactly what my wife wants to do.
A: 내 월급 올랐어!
B: 잘 됐구나!
A: 고마워
B: 이제 자네 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겠네.
A: 바로 그것이 내 아내가 원하는 바야!
get a raise : (미국어) (임금가격) 인상 = a pay hike
Good for you 'him, etc'! : 잘 한다, 거 잘됐다, 말 잘했다.
That's exactly what ~ : 그게 바로 ~한거야.
- That's exactly what I'm thinking.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야)
- That's exactly what she said.
(그게 바로 그녀가 말했던 거야.)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55>
ごめんごめん
미안해 미안해
A: あなた。今日は何の日か知ってる?
B: さあ、何の日だったっけ? 子供の誕生日だったかい?
A: 何言ってるのよ。頭が惚ちゃったの? 今日私たちの結婚10回目(かいめい)の記念日よ。
B: ごめんごめん。最近どうも、物忘れ(ものわす)れが激(はげ)しいんだ。
A: 당신, 오늘 무슨날인지 알고 있어?
B: 글세, 무슨 날이었지, 애 생일이었나?
A: 무슨 소리하는 거야. 머리가 흐릿해진 거야? 오늘은 우리를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야.
B: 미안해 미안해. 요즘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さあ: 글세
だったっけ?: ~~였지
かい: 의문(남성어)
物忘れ(ものわす)れ: 건망, 잘잊음
激(はげ)しい: 심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풍구위 <473>
全包在我身上了
전부 나한테 맡겨요
A: 你不跟我前一庭完局?
B: 下波我的输赢, 我还准备着呢.
A: 准备完我的输赢全在我身上了. 恭喜你.
A: 우리와 함께 일까요?
B: 나랑 후 보고자할 약속 준비 못 했어.
A: 자요 준비하는 건 전부 나한테 맡겨요. 내기 도둑놈들.
A: 你准备完我的输赢全在我身上了. 恭喜你.
B: 나랑 후 보고자할 약속 준비 못 했어.
A: 자요 준비하는 건 전부 나한테 맡겨요. 내기 도둑놈들.
www.cis.or.kr ☎ 02-3452-6775
<공자아카데미>

한자 이야기 <373>
花郎徒(화랑도)
꽃 화, 사나이 랑, 무리 도
화랑(花郎)은 글자대로 하면 '꽃다운 젊은이'이고, 화랑도(花郎徒)는 '화랑의 무리'라는 뜻이다. 화랑은 무리의 책임자로, 한 명의 화랑 밑에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여 명의 낭도(郎徒)가 조직을 이루었다.
6세기 말 신라는 한강(漢江) 일대와 함흥까지 영토를 넓힌 데다 가야(伽倻) 지역을 차지하였다. 더구나 불교를 이용하여 왕권도 강해졌으나, 인재를 모아 나라 안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은 과제로 남았다. 신라는 골품제(骨品制)의 고착화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 방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일찍이 여성 대표로 원화(源花)를 두고 그 아래 집단으로 놀게 하면서 행동거지를 보고 사람을 뽑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화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 청년을 화랑으로 세우게 되었다.
책임자인 화랑은 진골(眞骨), 일반 구성원인 낭도는 귀족(貴族)과 평민(平民)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리로 나아가서는 주로 군사와 관련 있는 직책을 담당하였다. 화랑은 겸손(謙遜)하고, 검소(儉素)하고, 방자(放恣)하지 않는다는 3가지를 생활신조로 삼았다.
<한예민(韓睿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